

# 비대면 글쓰기 강좌의 운영 사례와 학습자의 반응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환(대진대 창의미래인재대학 강의교수)

## 〈 목 차 〉

1. 서론
2. 글쓰기 강좌의 비대면 강의로의 전환 사례
  - 2.1.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
  - 2.2. 교수자의 비대면 수업 운용에서의 주안점
3. 비대면 글쓰기 강좌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 3.1. 설문 대상과 방식
  - 3.2. 수업의 학습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문제점
  - 3.3. 개선안으로서의 혼합형 수업 모델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2020-1학기 D 대학 글쓰기 강좌의 온라인 전환 사례를 소개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의 계획을 수정하는 한편,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비대면 수업 진행은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자기탐색과 객관적 자료 인 용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꾀했다. 둘째, 사례 분석 위주의 수업 진행으로 자기탐색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 유 발을 유도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 다. 학습자는 수업 참여를 통해 전반적으로 글쓰기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느 겠지만, 동시에 잦은 실습과 비대면 환경에 불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면 수업만큼의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비대면 수업 환경이 지속될 경우, 동영상 녹화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의 접목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코로나19, 비대면 강의, 온라인 수업, 동영상 녹화 강의, 공지, 소통, 자기첨삭, 교수첨삭, 학습자 반응, 설문.

## 1. 서론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2000년 대 이후<sup>1)</sup> 교양 글쓰기 강좌는 읽기 위주에서 쓰기 위주로,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이론 중심에서 실습 중심으로 변화해왔다. 글쓰기 강좌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 교수자들은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글쓰기 실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모델을 개발하거나 수업에 맞게 적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대략적인 방향성은 한마디로 학습자가 주도하는 실습 위주의 수업 체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속한 D 대학의 글쓰기 강좌인 <사고와 표현>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수업 진행에서는 이론보다 실습을 더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면적인 비대면 개강이 확정되면서 2020-1학기 글쓰기 강좌의 전체적인 설계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습 과정에서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학습자 간의 소통, 즉 협력학습이 어려워졌다. 그동안 글쓰기

1) 정희모, 「대학 글쓰기의 교육 목표와 글쓰기 교재」, 『리터러시 연구 1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0, 41-68면.

교육에서 협력학습의 필요성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sup>2)</sup> 그렇지만 온라인 협력학습은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sup>3)</sup> 물론 온라인 협력학습의 긍정적인 효과와 가능성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sup>4)</sup>, 아직까지는 그 효율성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sup>5)</sup>

다음으로 교수자-학습자 간의 소통이 힘들다. 글쓰기 학습은 이론의 습득 과정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 과정이며, 교수자의 역할 역시 -오류를 수정·보완하거나 숙련 시간을 단축시키는 요령을 지도하는 등- 학습자의 연습 과정을 돕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sup>6)</sup> 글쓰기 강좌가 이론 중심에서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 
- 2) 고명재, 「창의적인 글쓰기를 유도하는 협동글쓰기 수업 모듈 - <마음사전> 만들기 사례연구: 낱말의 비교와 용례의 활용을 통한 협동글쓰기」, 『교양교육연구』 13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279-304면; 송미영, 「담화 공동체의 소통을 통한 대학 글쓰기 지도 방안 고찰-협동 작문과 상호 평가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56집, 우리말학회, 187-210면; 김혜경, 「글쓰기 교과목에서 상호 동료 교수법을 적용한 협동 글쓰기 교육의 효과」, 『어문연구』 100집, 어문연구학회, 2019, 58-84면; 권미란, 「학습자의 자율성을 고려한 협동형 글쓰기 과제 연구」, 『리터러시 연구』 9집,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8, 107-126면; 김혜연, 「협동 글쓰기의 국내외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작문연구』 34권, 한국작문학회, 2017, 7-49면; 정연희, 「대학글쓰기교육에서 협동글쓰기의 교육적 의미와 유용성 연구 - 수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권,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43-271면; 최미진, 「PBL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의 실제」, 『현대문학이론연구』 6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409-436면.
- 3) 최근 각종 신문이나 학보의 기사, 다양한 대학교 커뮤니티의 게시물 등을 보면 특히 2020년 온라인 강의 전환 후 팀플에 대한 어려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 4) 김세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집단 글쓰기 과정 및 집단지성 발현 요인」,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4, 18-19면; 이지영, 「디지털 협력적 글쓰기 효과 연구-학생 필자 반응의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권,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199-234면.
- 5) 전향진·김광수, 「온라인에서의 글 수정전략과 성찰저널 작성 여부가 대학생의 글 수정과 글쓰기에 미치는 효과」, 『사고개발』 6권, 대한사고개발학회, 2010, 145-164면.
- 6) 정희모·이재성, 『글쓰기의 전략』, 들녘, 2006, 21면.

러나 비대면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 사항 및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체크하거나 피드백 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다<sup>7)</sup>

현재 글쓰기 강좌를 담당하는 있는 교수자 앞에 놓인 당면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당장 급한 것은 온라인 수업으로의 원활한 전환 문제이다. 대면 수업의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강의 방식의 변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교수자의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수업방식의 설계 및 개발, 학습자의 비대면 수업참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그리고 대학 시스템의 효과적·효율적인 온라인 수업 환경의 조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sup>8)</sup>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라인 수업 환경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개발하는 문제이다. 온라인 수업이 단순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없이 선택하는 차선택이 아니라 대면 수업을 대체하는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20-1학기 온라인 개강의 상황은 비록 충분한 내적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코로나 사태라는 외적 환경에 의해 일방적이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대면 강의 환경 하에서 수업의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색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강의 사례 및 학생들의 반응, 앞으로의 대비 등을 검토한 논의가 특히 실습 위주의 수업에서 다수 제출된 것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sup>9)</sup>

---

7) 이는 동영상을 녹화하는 강의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실시간 비대면 강의조차도 3-40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반응을 캠에 의존해서 체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8) 김미은, 앞의 논문, 520면.

9)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기영, 「온라인 실습수업의 이상과 현실 차이」, 『기계저널』 60집, 대한기계학회, 2020, 37-41면; 김미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대체가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및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519-541면; 정창권·윤종선, 「온라인 실시간 강의의 운영 사례와 교육 효과 : 고려대학교 <글쓰기 I> 과목을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3호, 한국융합인문학회, 2020, 159-179면; 백이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조사 - 교양 일본어 수업을 대상으로 -」, 『일본어교육연구』 52권, 한국어어

글쓰기 강좌 역시 해당 과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자는 기존 대면 위주의 수업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된 현 시점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주체적·능동적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자기탐색과 자료 찾기, 둘째, 교수자가 학습자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례 위주의 수업 진행과 소통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 방향이 학습자에게 실제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글쓰기 강좌의 온라인으로의 전환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글쓰기 강좌의 비대면 강의로의 전환 사례

2020-1학기 현재, D 대학의 글쓰기 강좌인 <사고와 표현> 수업은 총 24개 분반이며, 그 중 본 연구자가 맡고 있는 분반은 총 6개 분반, 인원은 284명이다. 분반 당 평균 40명 내외이다. 실질적인 수업 주차를 고려하여 한 학기 내에 세 편의 글을 연습-완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sup>10)</sup> 세 편의 글은 각각 성찰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 감상문 쓰기였고, 편 당 작성 기간은 평균 4주였다.

한편, 이번 학기 수업이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첫째, 학습자 간의 협력학습 배제, 둘째,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 셋째,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 진행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강의계획을 설계하였다.

---

교육학회, 2020, 59-74면; 이보경, 「코로나 로 인한 비대면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4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97-112면 등.

10) 글쓰기 강좌에서 학습자가 어떤 종류의 글을 어떤 방식,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써야 하는가는 현장의 상황 또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2.1.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

연구자가 특히 주목한 것은 온라인 환경 하에서 학습자는 글쓰기라는 미션(과제)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주도적 노력을 하는가 였다. 수업 진행 과정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주제 또는 개요의 과정에서 자기첨삭, 다시 말해 스스로 수정한 사례가 나타나는가. 일반적으로 자기첨삭은 동료첨삭, 교수첨삭에 비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1)</sup> 그렇다면 온라인에서의 자기첨삭은 어떨까? 물론 이를 객관화 하기란 쉽지 않다. 글쓰기에서의 첨삭 또는 수정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수정 과정과 수정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설혹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첨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첨삭은 실습 상황을 지켜볼 수 없는 온라인 수업 환경 하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연습 과정을 살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은 오히려 자기첨삭의 정황을 좀 더 명확하게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서의 자기 첨삭을 유도하고 그 효과를 살피기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연구자는 ① 자기첨삭의 중요성 강의, ② 주제 작성 및 개요 작성에 대한 피드백의 최소화<sup>12)</sup>, ③ 실습 과제를 통한 자기첨삭의 강제성 부여, ④ 자기첨삭의 이유 및 과정 확인의 네 가지 원칙하에 자기첨삭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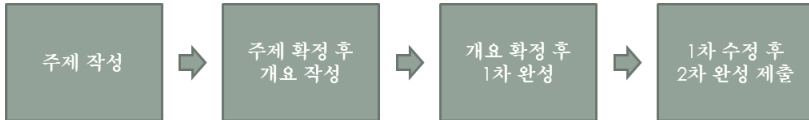
자기첨삭의 자료로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이전 단계, 즉 주제와 개요 단계까지로 한정하였다. 초고의 경우는 자기첨삭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기존 연구 성과가 있음을 위에서 제시했거니와, 한편으로는 최근 대학생이 필

11) 정희모·이재성, 「대학생 글쓰기의 수정 방법에 관한 실험 연구-자기첨삭, 동료 첨삭, 교수첨삭의 효과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3집, 국어교육학회, 2008, 657-685면.

12) 교수자의 지나친 개입은 자기첨삭의 능동성·주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피드백을 제한하였다.

요로 하는 글쓰기 피드백 중 하나가 ‘주제와 구성’ 위주의 거시첨삭이라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sup>13)</sup> 대략적인 수업 진행은 다음과 같다.

<표2>



표에 제시된 수업 진행 과정에서 자기첨삭과 관련된 부분은 주제 확정/개요 확정이다. 즉 주제 작성(실습과제1) 후 이에 대한 자기첨삭(실습과제2)을 하고, 다시 개요 작성(실습과제3) 후 이에 대한 자기첨삭(실습과제4)를 진행하였다.

자기첨삭의 양상은 통상적으로 최초의 작성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다르다. 즉 최초 작성이 뛰어난수록 자기첨삭을 통한 수정의 폭이 좁고, 최초 작성에서 문제가 많을수록 수정의 폭이 클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중-하로 나누어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최초 작성에서 문제가 많은데도 자기첨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물에 대해 종합적인 피드백을 진행하였다.<sup>14)</sup> 논의의 편의상 중-하에 해당하는 최초 작성을 바탕으로 자기첨삭을 통해 개선된 사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최초 주제		주제 개선		최초 개요		개요 개선	
	중	하	중	하	중	하	중	하
성찰적 글쓰기	92	81	83	69	81	70	78	63

13) 홍인숙, 「대학 글쓰기에서 자기 성찰 글쓰기의 효율적인 첨삭 지도 방안 연구 - 선문대학교 글쓰기 교과목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3집, 중앙어문학회, 2018, 409-438면.

14) 다만 수업 일수의 관계상 15주차에 기말 대체 과제로 진행된 감상문 쓰기의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비판적 글쓰기	중	86	69	중	94	79
	하	121	81	하	131	101
감상문 쓰기	중	96	82	중	83	77
	하	95	79	하	86	81

<표>에서 보듯, 최초 작성이 가장 많은 것도 자기침삭의 변화 폭이 가장 적은 것도 비판적 글쓰기였다. 이는 글의 성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의 생각이 크게 반영되는 성찰적 글쓰기나 감상문 쓰기에 비해 논리성과 객관성이 강조되는 비판적 글쓰기의 경우는 구상 단계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확률도 크고, 학습자의 고민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침삭에 대한 참여도와 개선의 양상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지표가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진행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이 결과의 의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둘째,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객관적 자료의 적절한 인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객관적 자료의 인용이 온라인 수업 환경 하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명백한 근거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자료의 적절한 인용은 지식의 내적 논리 확립을 위한 요건이며, 학습 목표를 성취하고 해당 분야의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필요요건으로 간주된다.<sup>15)</sup> 당연히 그 과정에서 능동적·주체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객관적 자료 인용은 통상적인 대면 실습에서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수한 경우 -도서관이나 온라인이 가능한 공간에서 수업하는 등-를 제외하면 대면 실습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찾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 환경 하에서는 학습자의 자료 찾기가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비대면 실시간 화상 강의의 경우는 보다 효율적인 실습이 가능하다. 문제는 객관적 자료의 인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활용에 있다. 대학생

15) 이인영,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 나타난 자료 이용 실태 분석」, 『비평문학』 41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280-281면.

의 글쓰기에서 표절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설혹 표절이 아니라 해도, 자료의 무의미한 나열, 적절하지 않은 인용이나 미흡한 분석, 또는 자료로 글의 분량을 채우는 행위 등등 자료를 인용하는 실태 역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의 목적에 맞는 자료의 선택, 선택된 자료의 해석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2020-1학기 자료 인용의 실태를 검토한 결과 수업 중 거듭된 강조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문제들이 대부분 발생하였다.<sup>16)</sup> 특히 온라인 학습 환경 하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찾으려는 안이함의 결과로 공인되지 않은 출처 불명의 글, 나아가 가짜뉴스와 같은 거짓된 글을 간단히 클릭 한번으로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수자의 역할이 특히 필요하다.

## 2.2. 교수자의 비대면 수업 운용에서의 주안점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 자기첨삭은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그리 크지 않다. 비록 온라인 환경 하에서 위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검증되지 않은 기대에 불과하다. 그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 교수법으로 선택한 방식이 사례 분석위주의 수업 진행이다. 교수자가 학생의 글이나 다른 매체에서 작성한 글을 분석/수정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종종 있는 일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있다.<sup>17)</sup> 연구자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교수첨삭의 과정을 온

16) <표4> 객관적 자료 인용에서 발생한 문제점-비판적 글쓰기의 경우

문제점	수치
① 서론이나 결론에 제시	24
② 무의미한 나열	14
③ 분석의 미흡	33
④ 인용표기 미비	8
⑤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 인용	29
⑥ 과도한 분량의 인용	4

17) 심호남, 「첨삭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 모형 연구」. 『리터러시연구』 14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5, 163-193면.

라인 강의에 적용하였다.<sup>18)</sup> 다만, 현재 수업을 듣는 학습자의 글을 다루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대상이 된 학생 글은 기존 수업에서 사례로의 활용을 허락받은 경우로 제한하였다. 통상적으로 대상이 된 사례는 2-3편 내외이며, 수업의 성격에 따라 5편 이상인 경우도 있다.

#### <표4> 작품 선정의 문제점을 수업에 활용한 사례

작품 선정의 사례 분석 - 11주차 실습 과제1을 대상으로

##### 1. 소설 '멋진 신세계'

- 그 예전에 '1984'와 '멋진 신세계'란 두 책을 대조한 짧은 컷의 만화들 본 것을 계기로 두 책을 읽고 비교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나) 그 중에서 '멋진 신세계'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보다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해당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그)은 감상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음. 나)의 경우 유사한 점을 찾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글쓰이의 문제의식을 얼마나 잘 서술하는가가 핵심

#### <표> 본문 쓰기의 문제점을 수업에 활용한 사례

엄마 심부름으로 인해 길을 나서서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하필 게임해야 하는데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인해 짜증을 느끼면서 길을 걷던 중 차가 다가왔다. 피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달려들었다. 평소 교통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는 나는 차가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어 왜저러지 하는 의아함을 느끼던 중 차가 달려들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차와 부딪쳤다.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다. 한 참 게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섰다. 투덜거리며 골목길로 접어들 때,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다. 나는 당황했다. 피해야 돼. 그러나 몸이 채 움직이기 전엔 나는 차와 부딪쳤다.

최근 글쓰기 수업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플립-러닝이다. 플립-러닝의 개념은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에서 미리 강의 자료를 선행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과 과제수행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현재 대학의 온라인 수업 방식 중 하나인 동영상 녹화 강의는 자연스럽게 플립-러닝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 현장 실습을

18) 동료침삭의 경우 최근 대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온라인 토크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은 경험의 축적과 새로운 모델 개발이라는 숙제가 남겨져 있다.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즉 학습자는 강의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데 그칠 뿐이며, 과제수행은 현장 실습에서의 장점은 갖지 못한 채,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역으로 보면, 플립-러닝으로서의 동영상 녹화 강의는 선행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은 물론이고, 학습자의 과제수행을 위한 실습 기능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본 연구자가 실제 사례를 침착하는 과정을 수업 상에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학생들의 자기침착의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 속에서 실습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면적인 온라인 개학이 결정된 이후 소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sup>19)</sup> 온라인 수업의 경우 소통 환경은 기본적으로 대면보다 비대면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특히 최근의 상황은 애초부터 차근차근 준비단계를 밟은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전개된 것이므로 어떤 면에서 혼선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다. 연구자 역시 비대면 하에서 학습자와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마땅한 해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결국 차선책으로 공지 전달을 강화하였다.

교육 현장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문제점 중 하나는 많은 학생들이 공지를 숙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 형태에서는 교수자 못지않게 학습자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글쓰기 강좌의 경우는 학습자가 수업의 진행 방향 및 수행 과제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전공 수업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자인 것과 대비해서, 글쓰기 강좌의 교수자의 역할이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의 돕는 조연자 내지 진행자와 같은 위치가 요구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실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조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온라인 수업 환경 하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물리적 접촉면이 없기 때문에 공지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2020-1학기 수업에서 공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소통 환경을

19)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74555>>.

개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수업 진행에도 활용하였다. 동영상 녹화 먼저 공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따로 한 후 수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공지를 전달하는 원칙은 첫째, 반복적인 것, 둘째, 쌍방향적인 것, 셋째, 신속할 것. 우선 중요한 내용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지 때마다 반복하였다. 앞으로의 진행 일정, 해당 글쓰기 작성의 중요한 포인트, 심지어 출결 문제 등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점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누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였다. 더불어 교수자의 일방적 전달만을 공지하지 않고,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말미에 메일이나 sns 등을 통해 건의 또는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개별 답변과 더불어 그렇게 들어온 내용을 수합·정리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수업 시작 전에 공지를 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공지란에 해당 사항을 탑재하였다.

### 3. 비대면 글쓰기 강좌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 3.1. 설문 대상과 방식

학습자는 2020-1학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글쓰기 강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0-1학기 <사고와 표현> 수업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세 차례의 조사 중 두 번째(중간)와 세 번째(기말) 설문에 비대면 강의와 관련된 항목이 있다. 대상은 6개 분반 284명(1학년 생 276명)이며, 국적은 모두 한국이었다. 익명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자는 각각 251(중간)/244(기말) 명이었다. 6개 분반 합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응답	
1	<사고와 표현>의 수업 관련 공지는 잘 이루어졌나요?(기말)	잘 이루어졌다 보통 미흡했다	206 30 8

2	교수자의 수업 진행에 대한 만족도는(기말)	만족 보통 불만족	206 22 16
3	<사고와 표현>의 실습과제에 대한 만족도는?(기말)	만족 보통 불만족	181 53 10
4	<사고와 표현> 수업은 글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나요?(기말)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195 41 15
5	<사고와 표현>의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은? (중간)	비대면 진행 많은 과제 의사소통 교수자의 피드백 교수자의 태도	74 70 58 46 3
6	<사고와 표현>의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은? (기말)	많은 과제 교수자의 피드백 비대면 진행 의사소통 교수자의 태도	91 67 65 19 2
7	<사고와 표현>의 좋았던 점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기말)	글쓰기 실력 향상 편리한 수업 참여 흥미로운 수업 진행 원활한 공지 글쓰기 동기 유발	71 51 48 36 18
8	<사고와 표현>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기말)	실습에 대한 피드백 온라인 수업 환경 과제 부담 기술적 문제(소음, 음량) 긴 강의 시간	49 28 19 13 11

1-6까지는 선다형 설문을 통해 수업에서의 소통, 학습 효과 문제점 등에 대해 파악하였고, 7-8의 논술형 설문을 통해 선다형 설문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학습자의 반응 양태를 살펴보고자 했다.<sup>20)</sup>

1항은 수업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상기 지표에서 알 수 있듯, 온라인 환경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은 양호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후술될 학습 효과의 긍정적·부정적 반응에서는 이 문제는 배제하고 살피기로 한다.

한편, 상기 설문조사는 2020-1학기에 최초로 실시된 글쓰기 수업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및 인식을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비교대상이 제한된다는 점, 다시 말해 수치의 변동 값이 갖는 의미/의의를 추적할 수 없다는 결정적 한계를 갖는다.<sup>20)</sup>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는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3.2. 수업의 학습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문제점

### 3.2.1. 학습자의 반응에서 나타난 긍정적 면모

2020-1학기 온라인 강의에서의 가장 큰 난점인 대면 실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침삭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객관적 자료를 통한 내적 논리의 확인, 사례 분석 위주의 교수법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그렇다면 학습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선 2-4의 선다형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알 수 있듯, 학습자들은 이러한 수업 방식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글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

---

20) 참여 인원과 해당 수치가 다른 이유는, 두 가지 이상 작성한 경우, 내용에 따라 각각 나누었고, 본 논제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 - 예를 들면 7항목에서 교수자의 친절함을 언급하거나, 8항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작성한 경우 등 - 는 제외했기 때문임을 미리 밝힌다.

21) 물론 연구자는 글쓰기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살피기 위해 그동안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이는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학습자가 수업 효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8항의 진술을 통해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7항은 학습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선다형 설문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자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려는 의도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글쓰기 실력향상이 있었다고 느꼈으며(71), 수업도 흥미롭다고 인식한(48) 이유의 대부분은 단계적 실습 과정, 사례 위주의 수업 방식이었다.

학습 효과의 향상과 관련된 답변 내용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에 대해 실습 과제로 차근차근 연습 시키는 것이 제일 좋았다.</li> <li>* 하나의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는 과정을 둔 점이 좋았고.....</li> <li>* 예시 위주의 수업이라 쉽게 이해되어 글쓰기의 두려움이 극복이 되었습니다.</li> <li>* 주제와 개요를 스스로 수정하고 .....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과정이 좋았다.</li> <li>*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 꼼꼼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좋았다.....글쓰기가 이 수업을 통해 조금 나아진 것 같다.</li> <li>* 자기가 스스로 첨삭한다는 점이 참신했고 흥미로웠다.</li> <li>* 확실히 알게 되었다. 글쓰기는 단계별로 반복적으로 고민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들!!</li> <li>* ....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구도를 짤 수 있게 내주셔서 좋았습니다.</li> <li>* 직접 선배들이 쓴 글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li> <li>* 글쓰기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흥미가 생겼다.</li> </ul>

먼저 사례 위주의 교수법이 수업의 흥미성을 높이는 한편, 자기첨삭의 효율성 강화에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유사한 과제를 수행했던 기존 학습자의 사례를 접함으로써 수업에 대해 좀 더 현실적 의미에서 흥미를 느끼는 한편, 해당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sup>22)</sup>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첨삭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20-1학기 <사고와 표현> 수업에서

22) 다만, 이 경우 학생의 글도 엄연히 저작물인 만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무단도용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사례로 사용한 글은 학생에게 수업에 써도 좋다는 허가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 한하여 활용하였다.

단계적 실습 과정은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자기첨삭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업 시간 중 거듭 강조한 바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실습 과제가 자기첨삭의 과정 그 자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계적 실습 과정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곧 자기첨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식했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이 실질적인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수업의 진행이 학습자의 학습 욕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글쓰기에 있어서 계획 단계, 즉 글의 주제를 정하고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은 글을 실제로 쓰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영상 매체 혹은 PPT를 활용한 글은 대부분 개조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성, 즉 내용을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에 더욱 방점이 찍히기도 한다. 요컨대 오늘날의 글쓰기는 이른 바 전통적인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매체에 맞게 변화되는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글쓰기 강좌 및 첨삭 프로그램을 운용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계획 단계에 소홀하거나, 심지어 어려워하는 경우를 자주 목도하게 된다.<sup>23)</sup> 최근 첨삭 프로그램의 운용 사례에서 글의 주제나 구성과 같은 거시첨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어떻든 글의 주제를 정하고 구성을 짜는 주체는 글쓴이일 수밖에 없다. 다만, 글쓰기 강좌에서는 학습자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 과정을 함께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단계적인 자기첨삭을 수업 진행 과정으로 제시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물론 앞에서 살핀

---

23) 최근 첨삭 프로그램의 운용 사례에서 글의 주제나 구성과 같은 거시첨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학생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바와 같이 계획 단계에서의 자기침삭이 모든 학생에게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자 대부분이 그 학습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이러한 연습의 유의미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2.2.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본 수업의 문제점

그렇다면 2020-1학기 수업에서 학습자가 느낀 불만 내지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5-6항의 선다형 설문과 8항의 논술형 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5-6항에 제시되었듯이 교수자의 태도를 제외한 불만의 수치 변화는 수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의 반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비대면 진행(74→65)의 경우는 처음에는 당황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의사소통 역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비대면이라는 낯선 환경으로 인해 느꼈던 갑갑함이 기말로 갈수록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8→19)

이와 달리 과제 부담은 기말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70-91) 이는 D 대학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많은 학생들이 과제량을 지적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sup>24)</sup> 흥미로운 것은 8항의 논술형 설문의 결과이다. 선다형 설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과제 부담이 논술형 설문에서는 19명으로 줄어든 것도 특기할 만 하지만, 그 19명의 응답 역시 역시 많은 과제(11명)와 객관적 자료 제시의 어려움(7명)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24) D대학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실시한 원격수업 설문조사

학습활동(과제, 퀴즈, 토론 등) 분량		[4] 비실시간(동영상)	
전체	1순위	적절했다	33.2%
	2순위	다소 많았다	30.8%
	3순위	매우 많았다	30.8%

있다. 2020-1학기 <사고와 표현> 수업의 실습 과제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핵심은 자기탐색, 보조는 객관적 자료 제시였다. 그런데 자기탐색의 효용성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는 1명에 불과했다. 객관적 자료 제시와 관련된 학습자의 반응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우나, 어쨌든 많은 과제를 문제 삼는다고 해도 정작 과제의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만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많은 과제로 인한 피로감도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는 융통성의 영역이지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개선사항은 아니다. 그에 비하면 교수자의 피드백에 대한 불만의 증가(46-67)는 수업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자기탐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습과제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을 최소화했다. 즉 모든 학습자에게 교수자의 특별한 코멘트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작성 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피드백을 제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안은 의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실습에 대해 교수자가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랐다. 8항의 논술형 설문 답변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 \* 온라인이라서 피드백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이 아쉬웠다.
- \* 온라인이라 수정 및 첨삭을 받는 부분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이 아쉬웠다.
- \* 실습과제를 낼 때마다 방목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TT
- \* 피드백이 없어서 제가 글을 잘 쓰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지 못해 불편했습니다.
- \* 무조건 맡겨두지 말고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그때 그때 물어보지 못 하고 ... 글쓰기 실력이 잘 성장하지 못한 것 같다.
- \* 대면 수업이 아니다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못 받아서 아쉽다.
- \* 교수님의 피드백 한번이면 될 것도 계속 빙빙 도는 느낌이였다.

비록 의도적이었다 하더라도 교수자의 피드백의 제한은 학습자들의 수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학습 역량을 감퇴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학습자의

25) 온라인 강의 환경을 문제로 지적한 경우도 대체로 실습 및 피드백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침삭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면서도 이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피드백의 적정수위는 어디쯤일까. 이에 대한 해답이 2020-1학기 수업에서는 나오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 3.3. 개선안으로서의 혼합형 수업 모델

결과적으로 상기 설문 결과는 2020-1학기의 수업 방식의 의의와 숙제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실습은 대면 실습의 학습 효과를 뛰어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효율적인 실습 방법은 없는 것일까? 물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학습 모델 개발은 그동안 여러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물리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 환경이 목전에 닥친 지금, 참신한 수업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주어진 현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대학의 강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동영상 녹화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 온오프 통합 강의(블렌디드 러닝)가 바로 그것이다. 초기에는 동영상 녹화 강의가 주를 이루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신속한 지원으로 상당수의 수업이 실시간 화상 강의로 전환되었다. 최근 코로나 19 유행이 다소 주춤하면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수업도 늘어났지만, 이는 외부의 상황에 의해 수업 형태가 변동될 여지가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동영상 녹화 강의는 일종의 플립-러닝에서의 선행 학습 자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문제는 동영상 녹화 강의는 토론과 과제수행 과정을 실시간 확인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플립-러닝에서 선행 학습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그만큼 강의실에서의 토론과 과제수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동영상 녹화 강의는 사실상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적 단계에 불과하다.

한편, 실시간 화상 강의는 동영상 녹화 강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고 실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학습자 역시 동영상 녹화 강의보다는 실시간 화상 강의를 더 선호하고 있다.<sup>26)</sup> 다만, 이 역시 문제는 있다. 당장 잠음, 조작미숙, 인터넷 연결 끊김 등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3-40명의 학습자와 한 명의 교수자가 한 화상 안에서 능동적으로 실습하거란 쉽지 않다. 엄밀한 의미의 실시간 소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sup>27)</sup> 또한 학습의 집중도 역시 강의실 현장에서의 그것에 비해 떨어질 위험이 크다.

양자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 화상 강의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동영상 녹화 강의에 비해 단점보다 장점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수업이나 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고민 중 하나로 동영상 녹화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의 병행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실시간 화상 강의의 경우 대체로 강의 자료를 미리 탑재하고 있다. 학습자는 강의 자료를 통해 다음 수업 진행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련된 과제를 수행한 후 수업에 참여한다. 여기에는 학습자가 미리 학습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학습자가 선행 학습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는 살피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동영상 녹화 강의 시스템을 병행하게 되면, 단순히 강의 자료를 탑재 하는 것에 비해 선행학습으로서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한편, 동영상 강의의 선행은 소통 환경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실시간 화상 강의는 동영상 강의의 소통 구조에 비하면 더 원활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소외되는 학습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소외의 양상은 천차만별이다. 학습자가 화상 강의에 집중할 수 없는 외부적 조건 때문일 수도 있고<sup>28)</sup>, 학습자가 스스로를 소외시킬 수도 있다. 화상에 학습자의 얼굴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화상 강의의 물리적 한계 상 학습자의 발언 기회가

26) <[https://www.ibric.org/community/biohelp/reply/onlineB4\\_3.html](https://www.ibric.org/community/biohelp/reply/onlineB4_3.html)>.

27) “원격수업은 왜 끔찍한가.... 전문가들의 이유있는 경고”, 오마이뉴스, 2020. 06. 18.

28) 앞의 기사 참조.

제한되거나, 교수자가 화상 전체를 컨트롤 하지 못해서 발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에 비하면 동영상 녹화 강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애초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없다.

물론 동영상 녹화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를 병행하는 것은 교수자에게나 학습자에게 이중의 부담이 된다. 동영상 녹화를 안 할 뿐이지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 선행학습의 효과가 그리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녹화 강의와 실시간 비대면 강의의 교차·병행을 통해 각각의 장점이 지닌 시너지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 4. 결론

온라인 강의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도입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척이 더뎠던 이유는 결국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담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부담감은 사실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이들을 묶어주는 학교 모두에게 있다. 교수는 온라인 강의 방식에 맞춰 기존 수업을 개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편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학습자는 온라인 강의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주체적 학습 태도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는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더 고도화될 매체 기술을 빠르게 흡수·적용해서 온라인 수업 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어떻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해진 현재, 우리는 교육 매체의 전환점에 서 있다. 비단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앞으로의 교육 환경에서 온라인이 차지할 몫은 커지고 있었다. 결국 위기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빠르게 찾아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참하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현 단계는 특정한 대안 내지 발전 방안을 확립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현장의 상황을

수집·축적함으로써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2020-1학기 D대학의 <사고와 표현>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설문 조사를 분석함으로써 글쓰기 강좌의 온라인으로의 전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검토하고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그 결과는 시행착오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분석이 성근 것도 문제이지만, 특히 비교 대상이 없어 객관적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고명재, 「창의적인 글쓰기를 유도하는 협동글쓰기 수업 모듈 - <마음사진> 만들기 사례연구: 낱말의 비교와 용례의 활용을 통한 협동글쓰기」, 『교양교육연구』 13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279-304면.
- 권미란, 「학습자의 자율성을 고려한 협동형 글쓰기 과제 연구」, 『리터러시 연구』 9집,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8, 107-126면.
- 김미은, 「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대체가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및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519-541면.
- 김세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집단 글쓰기 과정 및 집단지성 발현 요인」,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4, 18-19면.
- 김혜경, 「글쓰기 교과목에서 상호 동료 교수법을 적용한 협동 글쓰기 교육의 효과」, 『어문연구』 100집, 어문연구학회, 2019, 58-84면.
- 김혜연, 「협동 글쓰기의 국내외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작문 연구』 34권, 한국작문학회, 2017, 7-49면.
- 백이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조사 - 교양 일본어 수업을 대상으로 -」, 『일본어교육연구』 52권, 한국일어교육학회, 2020, 59-74면.
- 송기영, 「온라인 실습수업의 이상과 현실 차이」, 『기계저널』 60집, 대한기계학회, 2020, 37-41면.
- 송미영, 「담화 공동체의 소통을 통한 대학 글쓰기 지도 방안 고찰-협동 작문과 상호 평가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56집, 우리말학회, 187-210면.
- 심호남, 「침착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 모형 연구」, 『리터러시연구』 14집, 한국 리터러시학회, 2015, 163-193면.
- 이보경, 「코로나 로 인한 비대면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4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97-112면.

- 이인영,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 나타난 자료 이용 실태 분석」, 『비평문학』 41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280-281면.
- 이지영, 「디지털 협력적 글쓰기 효과 연구-학생 필자 반응의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권,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199-234면.
- 전향진·김광수, 「온라인에서의 글 수정전략과 성찰저널 작성 여부가 대학생의 글 수정과 글쓰기에 미치는 효과」, 『사고개발』 6권, 대한사고개발학회, 2010, 145-164면.
- 정연희, 「대학글쓰기교육에서 협동글쓰기의 교육적 의미와 유용성 연구 - 수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권,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43-271면.
- 정창권·윤종선, 「온라인 실시간 강의의 운영 사례와 교육 효과 : 고려대학교 <글쓰기 I> 과목을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3호, 한국융합인문학회, 2020, 159-179면.
- 정희모, 「대학 글쓰기의 교육 목표와 글쓰기 교재」, 『리터러시 연구』 1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0, 41-68면.
- 정희모·이재성, 「대학생 글쓰기의 수정 방법에 관한 실험 연구 - 자기첨삭, 동료첨삭, 교수첨삭의 효과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33집, 국어교육학회, 2008, 657-685면.
- 정희모·이재성, 『글쓰기의 전략』, 들녘, 2006, 21면.
- 최미진, 「PBL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의 실제」, 『현대문학이론연구』 6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409-436면.
- 홍인숙, 「대학 글쓰기에서 자기 성찰 글쓰기의 효율적인 첨삭 지도 방안 연구 - 선문대학교 글쓰기 교과목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3집, 중앙어문학회, 2018, 409-438면.
- “원격수업은 왜 끔찍한가... 전문가들의 이유있는 경고”, 오마이뉴스, 2020. 06. 18. <[https://www.ibric.org/community/biohelp/reply/onlineB4\\_3.html](https://www.ibric.org/community/biohelp/reply/onlineB4_3.html)>.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74555>>.

【Abstract】

## A Study on Non-Face-To-Face(Online) Writing Courses and Learners' Perceptions

Kim, Dowhan

In this article, we introduced the case of online conversion of the first semester D college writing class in 2020 and examined the learners' reactions. First, in order to support non-face-to-face classes, we revised the lecture plan and actively used the notice. Next, the non-face-to-face classes were conducted in two main ways. First, we attempted to strengthen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through self-correction and citation of objective data. Second, we supplemented the limitations of self-correction and induced learners to induce learning motivation through case analysis-oriented instruction. Next, we analyzed learners' responses based on the survey. The learner was relatively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the lect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amount of assignment, and motivation. Howev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learners' lecture time, effectiveness of practice, and communication problems. We discussed the combination of video recording lectures and real-time video lectures, and the development of new platforms as improvements.

**Keyword** : Covid-19, non-face-to-face lecture, online class, video recording lecture, notice, communication, self-correction, professors' correction, learners' reaction, questionnaire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1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